

광주시, 성과 창출 직원 파격 승진... 인사제도 개편 나선다

연공서열 문화 개선...전 직원 설문조사·간담회 통해 확정 격무부서 우대·업무 회피자 제재 등 내년 상반기부터 반영

광주시가 '일하는 조직,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선 8기 인사혁신안'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인사제도 개편에 나선다. 특히 직원, 노조 등과의 수시 간담회와 모든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격무부서'는 우대하고 '업무 회피자'는 제재하는 '신호등' 제도 도입 등 새로운 인사 혁신안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인사혁신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직급·직렬이 참여하는 직원 간담회와 실·국장급 간부공무원, 노조 등과 14차례 간담회를 거쳐 인사혁신 의제를 마련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거쳐 인사혁신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사혁신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가장 먼저 기존 인사제도를 개선해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직 내 공정한 정보인사, 신뢰·예측가능한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이하 근평), 능력 중심의 인사 발탁 등 3개 분야 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인사혁신안은 ▲신호등 정보인사제도 도입 ▲근평 기준 사전 예고제 ▲성과창출 우수공무원 발탁인사 ▲사업소 등 현장 근무인력 근무성적 평정제도 우대 등으로 압축된다.

'신호등 정보인사 제도'는 업무성과에 따라 정보·승진인사 시 합당한 보상(초록불)과 제재(빨간불), 주의(노란불)를 부과·안내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성과 우수자나 격무기피 부서 업무자 등은 선호부서에 우선 배치(초록불)보상 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업무회피자에 대해서는 승진배제(빨간불·노란불) 등의 원칙을 세웠다. 여기에 업무 난이도와 중요도, 성과 달성도에 따른 근평 등급 및 기준 등을 미리 공지하는 사전 예고제도 마련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직원의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의지다.

시는 또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 관행을 타파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과감하게 발탁 승진하는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인사방집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정영화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직원들과 함께 마련한 민선 8기 인사혁신안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상수도 사업본부, 무등록 업체에 특혜

전기·정보통신 관련 89건 부적절 계약... '쪼개기' 수의계약 정황도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무등록 업체에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다. 2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상수도 사업 본부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A 사와 전기 공사 33건, 정보통신 공사 56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는 전기공사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니었다. 감사위원회는 A사를 고발 등 조치하도록 상수도 사업본부에 통보했다. 광주시장에게는 상수도 사업본부에 기관 경고 처분을 하도록 했다. 사도 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해당 분야 사업을 하던 전기공사사업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사업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경미한 공사로 판단해 관련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

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감사위원회는 전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계량기 보호통 교체 공사를 하면서 단일 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을 5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급하고 장소가 구분돼 분리 발주가 효율적이었다고 사업본부는 주장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른바 '쪼개기'로 판단했다. 건강 검진일에 쓸 수 있는 공기와 관련해서도 사용일과 검진일이 다른 경우에도 연가 보상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에서 단순 관리시스템 운용 부적절, 공사원가계산 견적서 경비 적용 검토 소홀, 노후 계량기 교체 업무 소홀 등 모두 25건을 지적하고 11명을 훈계, 26명을 주의 처분하도록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북구새마을문고 '책 나눔' 25일 광주 북구 행복어울림센터 어울림강당에서 열린 (사)북구새마을문고 도서 나눔사업 '공유서가-책 나눔' 행사에서 북구청 주민자치과 직원과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보낼 책을 정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전남도,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전

주요 부품 조립·설치 선박...한전 등과 타당성 검토 공동용역

전남도가 25일 전남풍력산업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과 서면 업무협약을 하고,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WTIV)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은 터빈, 타워, 블레이드 등 초대형·고중량 해상풍력발전기 주요 부품을 싣고 해상에서 이를 조립해 설치하는 전용 선박이다.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GWEC)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은 전 세계적으로 137척이 운영 중이나, 이중 단 9척만이 10MW급 이상 대용량 터빈 설치가 가능하다. 또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도 2021년 55.9GW에서 2031년 370GW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용량 터빈 설치가 가능한 전용 설치선 확보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전남도와 전남풍력산업협회, 한국전력 등은 전남 해저지형에 적합한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제작 및 용선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지역 해상풍력 발전사업 현황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머지 기관은 용역비를 참여비율에 따라 분담해 전남풍력산업협회 주관으로 공동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국내 해상풍력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전용 항만 및 배후단지 등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며 "해상풍력사업은 울산, 전북, 인천, 충남 등에서도 진행 중이다. 전남이 가장 앞선 상태"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유자·가공식품 65만 달러 수출계약

전남도, 파리 국제식품박람회 홍보관 운영...4개 기업 인기몰이

전남도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2022 파리 국제식품박람회'에서 전남도 식품홍보관을 운영, 총 168만7000달러의 수출상담과 65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올해 58번째인 파리 국제식품박람회는 매해 200여 나라에서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 비엔날레 식품 박람회다. 한국에선 전남 4개 기업을 포함해 전국 98개 식품기업이 참가했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에 건강과 식물성 제품을 선호하는 글로벌 식품 소비 경향에 맞춰 네이처퓨어코리아(주)의 건강기능식품, 맛나푸드(주)와 세화씨푸드(주)의 김 가공식품, 맑고맑고따뜻한협동조합의 유자 가공식품 등 전남의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류의 성장으로 한국식품에 대

한 현지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김, 유자 가공식품에 대한 바이어의 관심이 높아 행사 마지막 날까지 현지 식품 바이어와의 상담이 지속됐다. 상담 결과 세화씨푸드(주)가 김부각, 김발김 등 40만 달러, 네이처퓨어코리아(주)가 효소, 플라겐 등 10만 달러, 맑고맑고따뜻한협동조합이 유자 음료 10만 달러, 맛나푸드(주)가 김발김, 돌김자반, 반절김 등 5만 달러 등의 수출계약을 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전남 우수 농수산식품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전라남도'를 글로벌 식품브랜드로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도내 기업이 세계 식품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녹지서 오염물질 배출한 사업장 9곳 송치

광주시, 폐수·소음 배출 업소 적발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민 휴식공간인 자연 녹지 지역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9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9일부터 제조업체 35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업소 10곳(28.6%)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상태로 폐수, 소음, 진동 배출 시설을 가동하고 실제 오염 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민생사법경찰과는 관할 자치구에서 사업장에 대해 행정 처분하도록 하고, 위반 사항이 무거운 9곳은 직접 수사에 검찰로 넘겼다. 김정민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삶과 휴식을 위협하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살기 좋은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BIXPO 2022
Invitation to the New Era : Meet Carbon-free Energy
2022. 11. 2. |수| - 11. 4. |금|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www.bixpo.kr

BIXPO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등록하세요!
(무료 사전등록: 11월 1일 까지)

BIXPO 2022_Program

- 개막식 11.02 (수) 10:00 / 다목적 1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국내외 대표 에너지 전문가의 기조연설
- 신기술전시회 / 전시장 1,2,3**
국내외 230개 기업이 참여해 신기술 교류와 상생발전의 장 마련
- 컨퍼런스**
· Energy Leaders Summit
· KEPCO R&D Master Plan 등 50개 세션
- 발명특허대전 / 다목적 2홀**
탄소중립 아이디어를 실현한 기업·대학생·일반인 등의 발명품 100여점 전시
- 부대행사** 에너지밸리 일자리박람회 /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 / 에너지 기술거래장터 등 다양한 행사

산업통상지원부 중소기업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